

■ 지방선거 핫코너

광주 남구청장 예비후보들 표심잡기 돌입

민주당이 광주 남구청장 예비후보에 대한 면접을 통해 후보를 5명으로 압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각 후보군들이 22일 남구 발전 및 복지정책 등을 들을 내세우며 표심 잡기에 본격 나섰다.

김화진 예비후보는 "민주형 시민참여 구정을 통해 시민과 함께하는 투명하고 신뢰행정과 복지행정을 펼치겠다"면서 "이를 위해 ▲주민참여 예산 전문과 공모 ▲재정 정보 공개 ▲공무원과 주민이 참여하는 배심원제 인사위원회 구성을 하겠다"고 밝혔다.

강운태 "배심원제 패널·사회 지역인사로"

민주당 강운태 의원은 22일 "광주 시장 경선방법인 시민공천배심원제에 참여하는 패널과 사회자는 광주지역 인사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석형 "전남 복지·교육체계 혁신 필요"

이석형 민주당 전남지사 예비후보는 22일 "전남도의 복지 및 교육 지원 체계의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용화 "금호 노사, 회사부터 살려야"

정용화 한나라당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22일 "금호타이어 1공장과 곡성 1공장이 원재료 부족으로 가동이 중단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김대식 "호남고속철 무안공항 경유해야"

김대식 한나라당 전남도지사 예비후보는 22일 "호남고속철도는 목포권을 비롯한 남해안 관광수요 증가, 영암·해남 등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무안기업도시 건설에 따른 교통수요 등에 대비해 조기에 완공돼야 한다"면서 "특히 무안공항을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장원섭 "7세이하 아이들에 아동수당"

장원섭 민주당 동당장 예비후보는 22일 "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바뀌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 7세 이하 모든 아이들에게 단계적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하겠다"고 공약을 밝혔다.



김강식 "불법 부추기는 후보 사퇴해야"

김강식 민주당 여수시장 예비후보는 22일 "부패·불법선거 부추기는 시장 후보들은 사퇴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홍영기 "대형마트 신규 입점 규제 강화"

홍영기 민주당 목포시장 예비후보는 22일 "대형 할인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한 신규 입점을 제한하고 규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선옥 "민원 부조리·비리 창구 운영"

김선옥 민주당 광주 서구청장 예비후보는 22일 "공무원의 업무 관련 금품수수 등 비리와 부당한 행정행위를 신고하도록 하고, 엄정한 조사와 처벌로 공직자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민원 부조리·공직자 비리 신고창구'를 설치·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임홍채 "광주 동구청장 경선 불참"

임홍채 민주당 광주 동구청장 예비후보는 22일 "민주당 동구청장 경선 방식을 수용할 수 없다"며 경선 불참을 선언했다.



임병춘 26일 시의원 선거사무소 개소

임병춘 민주당 동구 제1선거구(산수·계림·동명·충장동) 광주시의원 예비후보는 오는 26일 오후 5시30분 동구 동명동 계림 오거리 광주은행 365 코너 2층에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한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부통령이 21일 밤(현지시각) 하원의 건강보험 개혁법안 가결 후 성명을 발표하기 위해 백악관 이스트룸에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美 건보개혁안 의회 통과

사회보장 개혁 100년만에... 오바마 "미국민의 승리"

미국의 건강보험 제도를 40여년 만에 대대적으로 수술하는 역사적 건보 개혁법안이 21일 밤(이하 현지시각) 연방 하원에서 가결됐다.

이날 하원에서 통과됨에 따라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이 정치적 명운을 걸고 추진해온 건보개혁은 입법화 작업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하원은 지난해 12월 상원에서 통과된 건보개혁 법안을 원안대로 표결에 부쳐 찬성 219, 반대 212로 통과시켰다.

오바마 대통령은 하원의 법안 통과 직후 "미국민의 승리이며 상식의 승리"라면서 "이 법안이 건보시스템에 관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겠지만 우리를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만들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표결에서는 재적 431명(정원 435명, 현재 4명 공석)의 하원의원 가운데 민주당 소속 의원 219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공화당은 소속의원 178명이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한편 하원의 민주당 지도부는 가결된 법안에 일부 내용을 보완하는 수정안도 표결에 부쳐 찬성 220, 반대 211로 통과시켰다.

민주당 소속 의원 가운데 34명은 당론과 달리 반대표를 행사했다.

이 수정안은 상원에 넘겨져 23일 심의·표결 과정을 거칠 예정인데, 상원에서도 수정안이 채택되면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이 추진한 건보개혁을 위한 입법작업은 완전히 마무리된다.

'공무원 맞춤형 시간제' 근무 첫 발

여수 등 20개기관 내달 시범실시

여수를 비롯한 전국 20개 행정기관에서 공무원들이 개인 사정에 따라 일하는 시간이 스스로 줄이고 근무시간에 비례해 급여를 받는 '맞춤형 시간제 근무'가 다음달부터 시범 운영된다.

하는 전일제근무와 달리, 본인의 필요에 따라 주당 15~35시간 근무하고 그 시간에 비례해 보수를 받는 제도다.

국무총리실과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는 시간제 근무 시범 시행을 위해 23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여수시, 부산시, 경기도 등 20개 행정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2일 밝혔다.

출산·육아로 어려움을 겪는 여성·맞벌이 공무원과 여가활동 등에 관심이 많은 신세대 공무원들의 요구를 반영해 인력 운용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고자 마련한 제도다.

정부는 이들 기관에서 4월부터 9월까지 시간제근무를 운영해 성과가 좋으면 연말께 전 부처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시범 실시기관은 시간제 근무에 적합한 직무를 발굴하고 공무원들의 시간제 근무 전환을 지원하며 출산휴가나 각종 휴직에 따른 대체인력도 시간제 근무자로 충원한다.

시간제근무란 주당 40시간 이상 일해야

다. /김지욱기자 dok2000@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Daeri' (대리) featuring 'Daeri' (대리) and 'Daeri' (대리) with text about 'Daeri' (대리) and 'Daeri' (대리) services.

Advertisement for 'Ayeria' (아이엘리시아) featuring 'Ayeria' (아이엘리시아) and 'Ayeria' (아이엘리시아) with text about 'Ayeria' (아이엘리시아) and 'Ayeria' (아이엘리시아) services.